

가정의 구조적 배경 및 고교생 변인과 아버지-고교생간 공감적 의사소통의 관계

이 상 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생활수준, 아버지 실직여부, 어머니 취업여부 등 가정의 구조적 배경과 고교생의 성별 및 계열 등의 고교생 변인에 따른 아버지-고교생간 공감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을 층화군집표집에 의해 선발하여 최종 48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Barnes 와 Olson(1992)의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Adolescent-Father Form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가 취업상태인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넷째,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교생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일반계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 가정의 생활수준, 부모의 취업여부, 고교생의 성별, 고교생의 계열, 부모와의 의사소통

[†] 교신저자 : 이 상 길, 건국대학교, (134-09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3 동아아파트 101동 1407호
Tel : 010-6811-7823, E-mail : dave473@hanmail.net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관계의 상당부분은 부모-자녀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Cox & Harter, 2003; Sillars, Koerner, & Fitzpatrick, 2005). 특히, 청소년기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과 책임의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요구되며,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언어 및 기타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국길숙, 이미숙, 2003).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관계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이지만, 아버지-자녀 간의 수용적이고 긴밀한 관계도 자녀의 인지 능력과 성취 동기를 강화시키는 등 자녀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최홍규,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주었으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였다는 정도일 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Laursen & Collins, 2004). 또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그 대상이 아동에 국한한 경우가 많고, 주로 정의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속에서 가정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부가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아버지-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관계를 독립적인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고교생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의 구조적 배경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면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Barns와 Olson(1992)은 부모와 청소년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가족체계가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그 반대인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설명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여 공감적 수준을 고양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시, 통제, 명령에 의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공감적 수준이 저하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감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자녀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이란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깊은 존중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깊은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직접적이고 명료한 반응을 보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개방적이고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화만족도가 높다. 예를 들어, 김옥숙(2001)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이영숙과

김정옥(2002)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자녀는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으며, 국길숙과 이미숙(2003)은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고졸이나 대졸이상에 비해 청소년 자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더 일반통행식 의사전달을 한다는 정반대의 결과도 있으며(황순규, 1998), 아버지의 학력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결과도 발견된다(최홍규, 2000).

생활수준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버지와 자녀는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며, 가정형편이 부유할수록 아버지와 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김옥숙, 2001; 이영숙, 김정옥, 2002; 최홍규, 2000; Mistry, Biesanz, Taylor, Burchinal, & Cox, 2004).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버지와 자녀가 보다 풍족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이며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발견된다(국길숙, 이미숙, 2003; 김진숙, 류영주, 1985).

실직한 아버지의 자녀가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보다 성공에의 기대감이 낮다는 연구(Cinamon, 2001)가 시사하듯이 아버지의 실직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실직 가정과 비실직 가정 간에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 가족체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 결과, 아버지 실직여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나머지 변수와 아버지의 실직여부는 관계가 없었다

(전임순, 2004). 즉, 실직 가정의 자녀가 비실직 가정의 자녀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이은정, 2001). 반면 아버지의 직업적 경험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대체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Costigan, Cox, & Cauce, 2003).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Makri-Botsari & Makri, 2003)와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Zick, Bryant, & Oesterbacka, 2001) 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체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다만 어머니의 취업이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가정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가정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권위와 의사결정 비중이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 노동 증가 등 역할 재조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갈등이 심각해지면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쳐 자녀와의 대화 기피로 이어지기도 한다(장효진, 2002; Laible & Carlo, 2004). 이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변수정, 2004).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성별 원리가 작용하여 부자간이나 모녀간에 대화통로가 발달되어 있다(Laursen & Collins, 2004). 예를 들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국길숙, 이미숙, 2003; 남정홍, 2001; Lambert & Cashwell, 2004).

정반대로,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수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최홍규, 2000; jimenez & Delgado, 2002; Shek, 2000). 그러나 Barns와 Olson(1985)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고교생 계열에 따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연구를 찾아보면, 일반계 고교생의 아버지가 실업계 고교생의 아버지보다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국길숙, 이미숙, 2003). 그러나 김은주(2002)에 따르면 학교계열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위와 같이 상치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청소년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국내의 기존 연구가 주로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에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었고, 기존 연구가 주로 아동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연구 대상을 고교생 연령의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두었으며, 기존 연구와 달리 단편적으로 산재된 경향이 있는 가정의 구조적 배경변인을 통합적으로 설정하고자 했고, 보다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유용한 청소년 상담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와 아버지-청소년의 공감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시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

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의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과 고교생의 성별, 계열 등의 고교생 변인이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의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과 고교생의 성별, 계열 등의 고교생 변인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 및 고교생의 변인이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력을 갖고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11학년생(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층화 군집 표집을 하였다. 서울지역을 동서남북과 중앙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에 소속된 고등학교 중 무선적으로 일반계와 실업계 고교를 각각 1개교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11학년 학급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총 10개교에 700여부(일반계: 400부, 실업계: 300부)를 배부하여 530부(일반계: 318부, 실업계: 212부)를 회수하여 약 75.7%(일반계: 79.5%, 실업계: 70.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면서 응답이 지나치게 누락되거나 모호한 경우의 설문지를 제

외하여, 실제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484부로서 회수된 설문지의 약 91.3%가 본 연구의 최종 표집 대상이 되었다. 고교생의 성별 비율은 여교생 236명, 남교생 224명, 무응답이 24명이었다. 계열별로는 일반계 280명, 실업계 188명, 무응답 16명이었다. 계열별 표집 대상 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설문지 배부 단계에서 학생수의 차이를 감안하였고, 실업계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측정 도구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Barns와 Olson(199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에서 Adolescent and Father Form을 번안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의뢰 결과, 전체적으로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없었으며, 일부 문항이 보다 자연스럽고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아버지-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공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는 개방적인 긍정화법과 문제형의 부정화법을 교차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고교생 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10개의 홀수번호 문항과 아버지와 고교생 간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10개의 짝수번호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 방법은 홀수번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짝수번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반

반이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역채점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대 100점 사이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ns와 Olson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5이었다.

가정배경 변인 질문지

Lin, Cook과 Burt(2001)는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을 부모의 인적 측면, 가정의 경제적 측면, 그리고 가정내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인적자본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소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아버지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2년제 대학 이상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해 측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측면은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자기보고식 평가에 의해 가정의 소득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가정내 사회적 측면은 최근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과 그로 인한 가정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라는 시사적 측면을 반영하여 아버지의 실직여부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각기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아버지의 학력, 생활수준에 따른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 방식에 의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고교생의 성별, 계열에 따른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아버지의 실직여부만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과 고교생 변인의 예언력을 다중회귀분석의 입력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계산한 결과 최소 1.004에서 최대 3.228이었다. 일반적으로 VIF값이 10.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기상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값이 산출되었는데 그 값은 1.889이었다. 일반적으로 Durbin-Watson값이 2.0에 근접

할수록 자기상관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본 연구의 자기상관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고교생 공감적 의사소통의 차이 분석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21.951, p < .001$). 사후검정 결과 중졸이하집단($M = 51.73$)과 고졸집단($M = 60.71$), 중졸이하집단($M = 51.73$)과 대졸이상집단($M = 64.80$)은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고졸과 대졸이상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표 1.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과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

		N	M	SD	F	Scheffé
아버지 학력	1. 중졸이하	94	51.73	13.86	21.951***	1 < 2
	2. 고졸	301	60.71	13.15		1 < 3
	3. 대졸이상	59	64.80	13.11		
생활수준	1. 하	91	50.41	14.26	29.522***	1 < 2
	2. 중	305	60.82	12.71		1 < 3
	3. 상	65	65.15	13.19		
		N	M	SD	t	
아버지 실직여부	1. 실직	79	50.04	14.07	-6.534***	
	2. 취업	372	61.31	13.14		
어머니 취업여부	1. 취업	231	57.13	14.38	-3.533***	
	2. 전업주부	220	61.68	12.84		

주. *** $p < .001$

없었다.

가정의 생활 수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29.522, p < .001$). 사후검정 결과 저소득층집단($M = 50.41$)과 중산층집단($M = 60.82$), 저소득집단($M = 50.41$)과 고소득집단($M = 65.15$)은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산층집단과 고소득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의 실직여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6.534, p < .001$). 아버지가 취업상태인 고교생집단($M = 61.31$)이 아버지가 실직상태인 고교생집단($M = 50.04$)보다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3.533, p < .001$).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고교생집단($M = 61.68$)이 취업모의 고교생집단($M = 57.13$)보다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변인에 따른 아버지-고교생 공감적 의사소통의 차이 분석

고교생 변인에 따른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고교생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t = .743, p = .458$). 따라서 고교생의 성별과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의 계열에 따라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2.097, p < .05$). 일반계 고교생집단($M = 60.60$)이 실업계 고교생집단($M = 57.79$)보다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의 구조적 배경 및 고교생 변인의 예언력 분석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의 구조적 배경 및 고교생 변인의 예언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아버지의 학력, 가정의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정의 구조적 배경 변인, 고교생의 성별과 계열 등 고교생 변인을 입력방법으로 투입하였다.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고교생의 성별, 계열은 각각 더미 변수(dummy

표 2. 고교생 변인과 아버지-고교생의 공감적 의사소통

		N	M	SD	t
성별	1. 여	236	59.83	14.32	.743
	2. 남	224	58.87	13.47	
계열	1. 실업계	182	57.79	14.26	-2.097*
	2. 일반계	267	60.60	13.72	

주. * $p < .05$

표 3.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가정배경 및 고교생 변인의 예언력

	<i>B</i>	<i>SE</i>	β	<i>t</i>	<i>F</i>	<i>R</i> ²
아버지 학력	.670	1.977	.027	.399		
생활수준	5.215	1.969	.213	2.649**		
아버지 실직여부	6.032	1.972	.165	3.058**	13.256***	.160
어머니 취업여부	3.651	1.263	.131	2.889**		
성별	-1.033	1.524	-.037	-.823		
계열	.844	1.308	.030	.645		

주. ** $p < .01$, *** $p < .001$

variable)로 전환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가정의 구조적 배경과 고교생 변인의 아버지-고교생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회귀식이 성립되었다($F = 13.256, p < .001$).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분산의 16.0%가 예언되었다($R^2 = .160$).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생활수준($t = 2.649, p < .01$), 아버지의 실직여부($t = 3.058,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t = 2.889, p < .01$)가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었고 생활수준의 상대적 영향력($\beta = .21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버지와 고교생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이 가정의 구조적 배경과 고교생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가정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아버지의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설정되었고, 고교생 변인으로는 성별과 계열이 설정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보다 고졸이나 대졸인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

통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저소득층보다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중 또는 상인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비실직한 가정의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가정의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고교생의 성별에 따라 고교생이 지각한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고, 일반계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개방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생활수준, 아버지의 실직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아버지-고교생 간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수준의 예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받아 주고 공감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고교생 자녀와의 대화에서 보다 기능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길숙, 이미숙, 2003; 김옥숙, 2001; 이영숙, 김정옥,

2002).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버지-고교생 간의 공감적 대화에 있어서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김옥숙, 2001; 이영숙, 김정옥, 2002; 최홍규, 2000; Mistry et al, 2004).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갈등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부상하는 시기이다(Haiyan, 2004).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그 감정을 정화 내지 해소시켜 준다고 받아들이며, 아버지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의 신뢰가 두터워진다고 받아들인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어서 아버지를 통한 충분한 정서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간 차이에 따른 문제를 좁히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Landman-Peeters, Hartman, van der Pompe, den Boer, Minderaa, & Ormel,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고교생은 실직상태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은정, 2001; 전임순, 2004).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은 여러 상황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고교생 간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장효진, 2002; Laible & Carlo, 2004).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기점에 있는 고교생 자녀들은 일하는 아버지와의 대화

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전략에 주요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Jodl, Michael, Malanchuk, Eccles, & Sameroff, 2001; Lanz, & Castellini, 2004). 어머니의 취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을 위해 충분한 애정을 쏟기에 물리적 한계를 갖기 때문에(Dilworth, 2004), 부부 간의 불화를 비롯하여 아버지-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예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가족이 함께 여가와 취미활동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Huff, Mark McCoy, & Hill, 2003).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불가피한 가족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대화를 통해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는 달리,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s & Olson, 1985). 반면 일반계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보다 공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국길숙, 이미숙, 2003). 그리고 고교생의 성별과 계열은 아버지와의 공감적 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예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정의 구조적 배경이 고교생 변인보다 아버지와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적어졌고 남녀평등 의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가면서 자녀들도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느

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서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교생보다 낮은 지각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정의 구조적 배경에 따른 아버지-고교생 의사소통 수준의 차이에 비해서는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로 하여금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조적 배경이 청소년 내담자-아버지간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상담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빈곤 가정의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이 청소년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또한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빈곤층 청소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담적 개입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취업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매개적 역할이 더욱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내담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가정 내의 역학적 구조를 주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서 추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집의 대상을 종적·횡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에 특수고교와 대안학교 등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다른 학년, 다른 지역으로 표집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으로 분류하고, 아버지의 실직여부와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각기 2개의 집단으로만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을 세분화하고, 맞벌이여부 및 부부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들의 아버지-고교생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력이 16%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배경 변인만으로는 가정의 인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직업 유형, 부자가정여부, 취업모의 근무시간 유형 등을 포괄하고 나아가 생활 만족도 또는 삶의 질, 그리고 고교생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설명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길숙, 이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3(1), 89-107.
- 김옥숙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주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숙, 류영주 (1985).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

- 정관리학회지, 3(1), 77-91.
- 남정홍 (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수정 (2004).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은정 (2001). 아버지의 실직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 269-29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장효진 (2002). 실직자의 가족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임순 (2004). 아버지 실직가정의 가족관계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홍규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규 (1998).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가정 환경 변인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arns, H. L., & Olson, D. H. (199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Minneapolis, MN, US: Life Innovation, Inc.
- Cinamon, R. G. (2001). Father's unemployment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of his adolescent child.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3(4), 295-309.
- Costigan, C. L., Cox, M. J., & Cauce, A. M. (2003). Work-parenting linkages among dual-earner couples a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3), 397-408.
- Cox, M. J., & Harter, K. S. M. (2003).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Bornstein, M. H. (Ed); Davidson, L. (Ed); et al., *Well-being: Positive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Crosscurrents in contemporary psychology (pp. 191-20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ilworth, J. E. L. (2004). Predictors of negative spillover from family to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25(2), 241-261.
- Haiyan, K. (2004). A study on parent-adolescent conflicts. *Psychological Science (China)*, 27(3), 696-700.
- Huff, C. W., Mark McCoy, K., & Hill, B. (2003). The influence of challenging outdoor recreation 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37(1), 18-37.
- Jimenez, A. P., & Delgado, A. O. (2002). Family communication and conflict during adolescence. *Anales de Psicologia*, 18(2), 215-231.
- Jodl, K. M., Michael, A., Malanchuk, O., Eccles, J. S., & Sameroff, A. (2001). Parents' roles in shaping early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Child Development*, 72(4), 1247-1265.
- Laible, D. J., & Carlo, G. (2004). The differential

- rela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self-worth, and sympath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6), 759-782.
- Lambert, S. F., & Cashwell, C. S. (2004). Preteens talking to parents: perceived communication and school-based aggression. *Family Journal: Counseling & Therapy for Couples & Families*, 12(2), 122-128.
- Landman-Peeters, K. M. C., Hartman, C. A., van der Pompe, G., den Boer, J. A., Minderaa, R. B., & Ormel, J.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roblems in 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Science & Medicine*, 60(11), 2549-2559.
- Lanz, M., & Castellini, F. (2004). The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and the parents-adolescents relationship. *Eta evolutiva*, 77, 5-16.
- Laursen, B., & Collins, W. A. (2004). Parent-child communication during adolescence. In Vangelisti, A. L. (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LEA's communication series (pp. 333-348).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in, N., Cook, K., & Burt, F. 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Y: Aldine de Gruyter.
- Makri-Botsari, E., & Makri, E. (2003).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her mental health and children's functional status. *Psychological Studies*, 48(1), 36-46.
- Mistry, R. S., Biesanz, J. C., Taylor, L. C., Burchinal, M., & Cox, M. J. (2004). Family income and its relation to preschool children's adjustment for families in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727-745.
- Shek, D. T. L. (2000).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the treatment of,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enage children: Perceptions of Chinese adolescents. *Adolescence*, 35(137), 135-146.
- Sillars, A., Koerner, A., & Fitzpatrick, M. A. (2005).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1), 102-128.
- Zhengyan, W., Li, L., & Hongyun, L. (2004).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A comparative study. *Psychological Science (China)*, 27(5), 1056-1059.
- Zick, C. D., Bryant, W. K., & Oesterbacka, E. (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원고접수일 : 2005. 8.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1
게재결정일 : 2005. 11. 5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Variables, Gender, and Curriculums 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Sang kil Lee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perceived by 11th graders in terms of father's educational levels, family's living standard, father's unemployment status, mother's working status, 11th graders' gender, and curriculum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was conducted with 11th graders from ten high schools in Seoul, Korea ($N = 484$).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were measured by Barns and Olson's inventory (1992). One-way Analyses of Variance demonstrated that fathers' educational levels and the family's living standard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The case where father is in employment and mother is at home showed higher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Gender differences were not found.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showed higher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th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mily's living standard w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of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s.

Key words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s, parents' educational levels, living standard, father's unemployment status, mother's working status*